<5 · 18문학상 신인상 소설분야 수상작>

수족관엔 미늘이 없다

김희호

1

나는 민물장어를 응시한다.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수족관엔 엇비슷한 크기의 장어가 꼬리를 흔들지만 유독 늙은 장어가 시선을 붙든다. 하긴, 녀석은 대를 이어 수족관에서 둥지를 틀고 있다. 어쩌면 자신의 시간을 낱낱이 부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녀석만의 조용하고 끔찍한 전쟁을 치르면서 말이다.

난 납품받은 민물장어를 수족관으로 집어넣는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장어요리를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 덕분에 적자를 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때, 허참중령이 식당으로 들어선다. 나는 그가 외박을 나올 때마다 심장의 피돌기가 빨라진다. 허참중령이 수족관에서 버르적거리는 늙은 장어를 가리킨다.

"유리야. 이놈부터 잡아. 구석에서 비실거리는 놈은 오래 못 살아. 금방 죽거든."

나는 그의 말에 호흡이 거칠어진다. 늙은 민물장어의 어미의 어미는 아빠와 엄마가 세상을 앞질러 가던 날, 수족관에서 부화했다. 난 그의 군홧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관단총을 내뿜는 탱크와 총칼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헤집는다. 더러는 거리의 사람들과 마이크를 들고 달려가는 여대생의 출렁거리는 머리칼과 쓰러진 아빠와 엄마 앞에서 통곡하는 할머니가 떠오른다. 나는 뻣뻣한 눈길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귀밑까지 쳐올린 짧은 머리칼, 서늘한 눈빛을 깊게 만드는 높고 긴 콧대, 목소리만큼이나 굵은 목덜미….

"왜 그런 눈으로 봐? 눈길이 불편해 보이네."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허참중령이 버둥대는 늙은 민물장어를 뜰채로 잡아 올린다. 나는 녀석을 놓아주고 다른 장어를 선택한다. 그는 어정쩡한 자신의 위치가 마음에 걸려서인지 입술꼬리를 올리고 억지웃음을 짓는다. 나도 허참중령이 싫지는 않다. 그를 볼 때마다 푸근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온몸을 휘감아 치고도 남아도는 아픔이기도 하다. 그 아득했던 세월이 나의 몫으로 다가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칼을 집어 든다. 관광객이든, 친목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든, 장어 요리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님이 음식 값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를 보이면 소주 값을 빼준다. 값싼 상술은 절대 부리지 않는다. 더구나 민물장어는 살점이 단백하고 깊은 맛을 간직하고 있다. 그 순간, 장어 한 마리가 꼬리를 세차게 흔든다. 나와 허참중령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족관을 응시한다. 유리이음새를 따라 옴팍옴팍 파인 물받이 홈이 헐거운 목걸이처럼 이어져 있다. 할머니는 오래된 물받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대를 이어온 수족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언제까지고 정물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2

예약손님들이 하나 둘, 우산을 받쳐 쓰고 식당으로 들어선다. 나는 곧장 허리를 굽혀 인사말을 건넨다.

"장어 쓸개 술을 준비 할까요? 아니면 소주를 드릴까요?"

"비가 오고 하니까 쓸개 술이 좋겠지요. 장어 소금구이도 부탁해요."

허참중령이 나를 응시한다. 나는 그의 시선을 외면하고 부엌을 휘휘 둘러본다. 부뚜막이 손때에 절어 반질반질 하다. 할머니는 밑반찬을 손님상으로 나른다. 잠시 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유리야! 장어 양념구이도 추가다!"

장어, 그랬다. 할머니는 수족관 청소를 하려다 말고 화들짝 놀랐다. 수족관에서 막 부화한 치어를 보았다. 신기한 일이었다. 치어는 수족관에서 천천히 맴을 돌고 있었다. 새끼장어의 어미가 어떤 녀석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들고 있던 뜰채를 등 뒤로 감추었다. 그리곤 부엌아궁이에 앉아 가슴을 안고 오래오래 소리죽여 울었다. 아빠와 엄마의 몸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었다. 거리는 쓰러진 시민들의 몸에서 흘러내린 핏물로 온통 뻘겋게 물들었다. 아빠와 엄마는 채 감기지 않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퍼런 광기에 놀란 시민들은 깍지 낀 양손을 머리에 얹고 어디론가 끌려갔다. 거리곳곳엔 육중한 탱크가 버티고 있고 부서진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린 곳을 살피는 검은 베레모의 눈빛엔 살기로 가득했다. 그랬다. 할머니는 아빠와 엄마를 허망하게 보낸 일이 마음에 걸려 콧물까지 철철 흘리며 울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새끼장어의 수족관을 따로 만들었다.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소주잔을 거푸 입으로 가져갔다. 입으로 들어간 소주는 모두 눈물이 되어 나왔다. 아빠와 엄마는 가난 속에서 설익은 밥알을 삼켰고, 그 가난 속에서 눈물을 숨겼으며, 그 눈물 속에서 가족을 사랑했다. 나는 아찔한 어지럼증에 그만 얼굴을 묻고 처절한 울음을 내놓았다. 끝내는 콧물까지 철철 흘리고 말았다.

나는 아빠와 엄마 생각으로 머릿속이 온통 거미줄처럼 엉켜버린다. 허참중령의 구애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날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맞다. 나의 가슴팍에 새겨진 아빠와 엄마의 열정과 헌신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언제까지나 시방인 양 살아 꿈틀거린다.

난 도마 위에 민물장어를 내려놓는다. 탱탱함이 느껴진다. 꼭 기철 팀장의 피부를 만지는 듯한 착각이 든다. 나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는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이 지지러진다. 학원장 사모의 전화다. 휴대폰이 아무리 울고 보채도 받고 싶지 않다. 혀는 간사하다. 농익은 욕망을 가진 혀는 장어꼬리처럼 음식물을 휘감지만, 뱉어진 말은 휘감지 못한다. 학원장과 수학선생이 종적을 감추고, 기철 팀장이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나마저 떠나왔다.

그랬다. 사모는 뜨거운 열기를 쏟아내는 커피포트처럼 수시로 성질머리를 부렸다. 전화를 늦게 받는다고 화를 내고, 학원장의 일정을 바른대로 보고하라고 울분을 토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패악을 부렸다. 언제 어디서나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 같았다. 나는 그때마다 허겁지겁 음식물로 혀를 위로했다. 하긴, 국문학전공에 경력단절인 여자를 받아주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 인터넷을 뒤져 입사지원을 하고, 직원이 3명밖에 없는 국어, 영어, 수학 전문학원에 취직했다. 이력서 특기 란에 쓸 게 없어 '시키는 대로 잘하기'라고 쓴 게 직원으로 뽑힌 이유였다.

나는 온라인 국어수업 녹화를 도맡았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지만, 출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했다. 게다가 직원으로서 지켜야할 당연한 의무는, 목표매출액 달성과 이익창출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언제나 빗나가기 마련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의욕이 치솟다가도 학원에 출근하면 스트레스에 머릿골이 지끈거렸다. 그랬다. 학원장은 온갖 고수들이 판치는 학원정글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는 그만둘 때를 알지 못하고 끈질기게 밀어 붙였다. 처절한 도박이었다. 한번 무너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평정심을 잃었다. 사모는 더 이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세상은 실패에 그다지 너그럽지 못했다. 그 여파로 학원장의 친구들은 알아서 연락을 끊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사모는 화를 내며 학원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유리야 선생, 전화를 왜 늦게 받아? 졸고 있었어? 게을러 터져가지고. 원장님 스케줄은 어떻게 돼?"

"저녁 7시에 온라인 학습지 관계자와 미팅 있으십니다. 아마 늦으실 거예요. 사모님"

"무슨 소리야. 미팅은 이틀 전에도 있었잖아! 잘려봐야 정신 차리지? 똑바로 말 못해!"

정말 그랬다. 학원장은 늙고 추해가는 사모를 멀리하고 젊고 애교 많은 수학선생과 열정을 불태웠다. 온라인 학습지 관계자와 미팅은 학원장이 수학선생과 밀회를 즐긴다는 은어였다. 그들은 간당간당하게 가정을 지켜나갔다. 사랑을 잃은 사모는 자신의 경제력을 통해 아직도 사랑이 남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 하며 사는 여자였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이 한집에 살며 속고 속이며 살았다.

나는 학원장과 사모 사이에서 줄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잠시 뒤, 사무실 문이 열렸다. 컨설팅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나온 기철 팀장이었다. 그는 언제나 깨끗하게 다림질 된 정장 차림이었다. 기철 팀장은 일주일 동안 입시학원에 상주하며 학원의 문제점을 찾아내,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별나라 사람이라 여겼다. 기철 팀장이 웃으며 인사말을 건넸다.

"벌써 프로젝트 마지막 날이네요. 아쉬워요.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저녁이요?"

"네, 덕분에 컨설팅도 잘 끝냈으니,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간 업무 이야기 말고는 틈을 안주시니 부담스러우실까봐 꾹 참고 있었어요."

나는 머릿속 생각과 달리 입에서 네,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기철 팀장은 거절할 수 없는 정중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나를 고급승용차에 태우고 호텔로 들어섰다. 스파게티에 와인을 곁들인 저녁식사는 나의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이 나왔다. 그는 호텔직원들에게 얼굴이 익숙한 손님이었다.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다. 일주일 전에 미팅을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꾼 공로로 학원장이 카드를 건네주었다. 백화점에서 모던 베이직 원피스를 구입했다. 그 원피스를 입고 오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장실이 어느 쪽인가요?"

호텔직원은 얼굴근육까지 씰룩이며 친절한 미소로 화장실 입구까지 안내했다. 꼭, 정밀하게 프로그램 된 인조로봇을 대하는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에서 배란일을 계산해 보았다. 그리곤 속옷 색깔과 같은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자리로 돌아왔다. 기철 팀장은 나의 붉은 입술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취하죠? 나도 좀 알딸딸한데…. 제가 호텔 멤버십 회원권이 있는데 잠깐 눈 좀 붙이고 갈래요?"

나는 통속적이고 상투적인 유혹을 하는 그의 그렁한 눈길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철 팀장은 카드로 계산을 하곤 승강기에 몸을 실었다. 그날 이후 주말마다 기철 팀장의 오피스텔로 갔다. 우리의 만남은 그 해 뜨거운 여름에서 시린 겨울까지 이어졌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듯했지만 너무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 서로를 탐하던 시린 겨울날, 휴대폰이 자지러졌다. 학원장 사모의 전화였다. 사모는 내가 인사말을 건네기도 전에 성질머리를 부렸다.

"야! 너 알고 있었지? 원장님이 온라인 학습지 관계자와 미팅을 한다고? 수학선생이랑 얼싸안고 놀아나는 거 알고 있었잖아! 이년이 겁도 없이 거짓말을 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모님."

"모르긴 뭘 몰라! 너희 년 놈들이 짜고 날 속였잖아!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사모님, 진정 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탐정사무소에 부탁해서 사진까지 찍어놨어. 유리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리분별 할 줄 모르네? 아무튼 이혼소송 진행 할 테니까 네년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나쁜 년이야! 내가 년 놈들 모두 말려 죽일 거야."

사모는 험악한 욕설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튿 날, 학원장은 사모의 돈을 횡령해 종적

을 감추어버렸다. 사모는 내가 공범이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랬다. 수시로 전화를 걸어 찢어죽일 년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학원장이 수학선생과 종적을 감춘 그날부터인지, 기철 팀장이 아무 말 없이 오피스텔을 정리한 뒤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한동안 말을 잃었다. 지독한 외로움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그 순간, 태어나고 자란 무등산자락이 생각났다. 그나마 할머니는 아빠와 엄마를 추억하며 무등산입구에서 민물장어 전문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랬다. 그리움은 극복되는 것이 아니었다. 물거품처럼 사그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움은 가슴팍 깊숙이 웅크리고 있다가 실바람이 건들 불면 안개처럼 풀풀 날아오르는 법이었다.

3

나는 도마 위에 놓인 민물장어 아가미에 칼끝을 댄다. 내장이 닿지 않도록 살짝 힘을 준다. 아가미에서 꼬리지느러미까지 단칼에 긋고 몸통을 젖힌다. 비릿한 냄새가 코끝으로 밀려든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한동안 비린내를 음미한다. 탱탱한 살점엔 윤기가 흐른다. 난 발라낸 민물장어 살점을 접시에 담는다. 대가리와 뼈는 따로 모아 육수를 만들 것이다. 특히, 쓸개는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국물에 섞이면 쓴맛이 난다. 나는 굵고 싱싱한 장어 쓸개를 소주병에 담근다. 손님들은 장어구이나 장어쓸개 주를 맛보기 위해 삼십 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한다. 함께 온 동료들과 떨어져 따로 테이블에 앉는 경우도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난 식당내부를 휘휘 둘러본다. 손님들의 왁자한 웃음소리로 성대한 축제장으로 변한다.

나는 장어의 대가리를 칼등으로 내리친다. 녀석은 잠시 기절을 한 채 아가미를 달싹거린다. 유쾌한 일은 아니다. 순간, 기철 팀장의 달콤한 말이 머릿속을 헤집는다.

‘유리야. 넌 누군가 살짝만 스쳐도 금방 금이 갈 것 같아. 누구도 너에게 상처를 내지 못하게 영원히 지켜주고 싶어.’

기철 팀장의 든든한 말 한마디에 나의 마음에 물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분명 생명이 뿌리내릴 것 같은 깊은 샘물이었다.

나는 기철 팀장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밑바닥에서 한기가 피어오른다. 밀려든 한기와 함께 나의 머릿속에 저장된 그의 주줄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헤집는다. 그의 말은, 닳고 닳은 책표지 같은 것이어서 언제나 나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

그랬다. 기철 팀장은 나를 오래도록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게 등을 보이기 시작했다. 초조해졌다. 그 남자를 잃고 혼자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헤어지자는 말도 없이 슬그머니 오피스텔을 정리해 버렸다.

그렇다. 수족관 장어가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장어는 그 겉모양만으로 구이감인지 탕감인지 구별이 가능한데, 사람은 다르다. 처음 보았을 때 그가 대물인지 한낱 잡어인지 좀처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잡어 같은 남자라니, 끔찍하기 그지없다. 그 여파로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간다. 칼날에 장어기름이 묻어있다. 그걸 방치하면 칼날이 살점에 스며들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나는 칼날을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곤 살점을 확인한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육질의 탄력, 활동성, 스트레스 상태 등을 파악해 어떤 칼을 사용할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손님의 입맛과 내 칼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 단골손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나또한 그 과정을 통해 펄떡이는 장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혀를 통해 감칠맛을 느낀다. 내 칼이 장어의 살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맛을 불어넣는 것처럼 손님의 혀는 바로 반응한다. 손님이 만족해하며 식당을 걸어 나갈 때면, 손님을 통해 나를 들여다본다. 그때마다 내 몸에서 펄떡이는 힘이 느껴진다. 도마 위에 올려 진 민물장어는 새로운 생명의 한 부

분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할머니는 예약 손님을 위해 해산물을 플라스틱 통에 담근다. 굵은 소금을 넣어주면 이물질을 천천히 뱉어낼 것이다. 굴이 껍데기를 벌리고 해감을 시작한다. 바다냄새가 강렬하게 피어오른다. 할머니는 굴을 집어 들어 칼끝으로 껍데기를 벌린다. 나는 떼어낸 굴을 물에 헹군 다음 단숨에 꿀꺽 삼킨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든 탓이다. 온몸의 기력이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것 같다. 굴이 기력을 돋우는데 효험이 있다고 할머니가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해산물 손질이 끝나면 굴을 먹는다.

할머니는 두툼한 굴을 도마 위에 펼쳐놓고 칼끝으로 칼집을 넣고 채소를 말아 넣는다. 굴과 채소를 부침으로 내놓을 생각이다. 그 순간, 수족관에서 민물장어 한마리가 뛰어오른다. 나는 화들짝 놀라 움켜쥐고 있던 칼에 검지를 베인다. 허참중령이 바닥에 떨어진 장어를 수족관 안으로 집어넣곤 중얼거린다.

"바닥에 떨어진 놈은 곧 죽어. 이놈부터 잡아."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 여파로 칼에 베인 검지의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머리끝까지 뻗쳐 올라온다. 하지만 수족관의 민물장어는 꿋꿋이 꼬리를 흔들고 있다. 나는 장어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터무니없는 배짱이라도 생긴 것일까. 할 수만 있다면 할머니의 생명을 파먹는 암세포를 도려내고 싶다. 하지만 내가 꿈꿔온 기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더구나 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생의 마지막 종점을 향해 숨고르기를 하는 할머니만 생각해도 가슴팍이 싸르락거린다.

허참중령이 칼에 베인 검지에 반창고를 붙여준다. 나의 입술에서 풍선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칼은 크든 작든 간에 모두 예리하다.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가끔 피를 보곤 한다. 그래서 내 손은 흉터를 안고 산다. 그 순간, 손님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성대한 축제장 같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장어 아가미에 어슷하게 칼을 넣고 살점을 뜬다. 손님들의 혀와 이빨 사이에서 장어살점 씹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도려낸 뼈는 맑은 탕으로 쓰일 것이다.

할머니는 해산물 손질을 끝내고 부엌과 홀을 넘나든다. 밀려드는 손님 때문에 정신이 없다. 허참중령이 나를 힐끔 쳐다보며 말문을 연다.

"손님이 많아 다행이다. 할머니 병원비 걱정도 덜고."

나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뱉는다. 그는 괜한 말을 꺼냈다는 표정으로 나의 눈치를 살핀다. 나는 허참중령의 시선을 외면하곤 행주로 조리대를 꼼꼼하게 닦아낸다. 그때 수족관에서 민물장어가 꼬리지느러미를 세차게 흔든다. 나는 도도하고 유연한 장어의 몸놀림을 응시한다. 허참중령과 닮았다. 그는 동료들 앞에서 언제나 여유롭게 행동한다. 부대에서도 그의 재담과 부지런함에 활기가 넘친다. 궂은일도 도맡는다. 게다가 내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여러 번 도움을 받았다.

허참중령은 수족관 구석에서 흐느적거리는 늙은 민물장어에게 눈길을 준다. 녀석은 수족관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늙은 장어는 언제나 연민을 자아낸다. 나는 수족관에 손을 넣어 늙은 장어의 등지느러미를 쓸어준다. 허참중령이 나는 쳐다보며 대뜸 묻는다.

"유리야. 구석에서 비실거리는 놈은 오래 못 살아. 금방 죽거든."

나는 그의 말에 심장의 피돌기가 빨라진다. 수족관의 늙은 장어는 할머니와 닮아있다. 늙은 민물장어가 몸을 뒤집고 수족관 위로 떠오른다. 나는 버둥대는 늙은 장어 대신 다른 놈을 뜰채로 떠올린다. 펄떡이는 장어를 기절 시킨 다음 단번에 대가리를 자르고 살점을 떠낸다. 허참중령이 나의 눈치를 살핀다. 나는 그의 시선을 외면하곤 장어 살점에 양념을 바른다. 녀석이 꼬리를 들어올린다. 이 참상에 대해서 꼬리가 항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여파로 심장이 여리게 팔딱댄다. 언제 뜰채에 잡혀 도마에 오를지 모르는 장어처럼 할머니가 그런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렵다.

4

할머니가 뜨거워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장어살점을 얹는다. 허참중령이 옆에서 계란 노른자를 풀어 살덩이 위로 뿌린다. 살점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간다. 할머니는 예쁜 그릇에 장어부침을 담아 내려놓는다. 색다른 음식으로 착각할 만큼 먹음직스럽다. 허참중령은 장어구이보다 장어부침을 즐겨먹는 편이다. 할머니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마다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진다. 허참중령이 나에게 그렁한 눈길을 보냈다. 할머니는 나와 그를 번갈아 보곤 잇몸이 드러나게 웃는다. 그 웃음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싸르락거린다. 수족관에 갇힌 늙은 장어처럼 할머니도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내고 있다. 가슴에 암세포가 퍼지는 중이다. 그나마 학원장 사모에게 이유 없이 더러운 쌍욕을 수시로 들고 산다. 수신거절을 해도 소용없다. 아주 집요한 여자다. 울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참을 밖에 도리가 없다. 그나마 사모의 어눌한 말투는 술에 찌들어 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러는 절규한다.

'가슴이 타버리는 것 같아. 온 몸이 타버리고 재가 되어 버렸으면 좋겠어. 남편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수학선생이랑 날라버렸어. 난 버림받았다고! 시궁창 쥐보다 못한 것들은 말려서 찢어 죽여야 해!'

남편의 배신으로 인생의 부도를 맞는 여자다. 사모는 상상하지 못 할 정도로 망가져 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악담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다. 나도 학원장과 사모사이에서 줄타기를 한건 사실이다. 수학선생과 미팅을 즐기는 걸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그의 카드와 거래를 했다. 사생활에 대한 침묵의 대가였다. 나는 카드의 위력을 알고 있다. 사장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일요일 저녁, 어느 백화점에서 사모와 함께 명품매장을 거닐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나는 어금니를 앙다물고 엎드려 있는 늙은 장어처럼 좀 더 참아보기로 마음을 다잡는다. 사모는 학원장의 배신에 눈이 허옇게 멀고 죽어가는 늙은 장어처럼 살고 있다. 사모도 불쌍한 여자다.

나는 민물장어의 배를 갈라 핏물과 내장을 긁어낸다. 뼈와 내장도 손질해 수돗물에 씻는다. 할머니는 당근과 파슬리로 한껏 멋을 낸 장어튀김을 접시에 담는다. 꼬깃거리는 천 원짜리 몇 장에 웃고 울었던 할머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으로 떠오른 순간, 허기가 느껴진다. 나는 장어튀김을 입에 넣고 비린내까지 혀에 둘둘 말아 먹는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칫솔로 전복을 세차게 문지른다. 전복껍데기를 분리하기 전에 꼭, 거쳐야하는 단계다. 숟가락을 뒤집어 전복이빨이 있는 부분을 위로 밀어 올리면 쉽게 분리된다. 나는 잘 다듬어진 전복알맹이를 조리대 위에 펼쳐놓는다. 가늘고 긴 꼬챙이에 끼워 꼬치구이를 만들 요량이다. 달궈진 팬에 구우면 바다냄새가 강렬하게 피어오른다. 전복꼬치구이를 맛본 손님은 꼭, 전복꼬치구이를 찾는다. 나는 눈을 감는다. 허참중령과 어떻게 매듭지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어쩌면 그가 제풀에 지쳐 포기 할지도 모른다. 그 여파로 심장이 방망이질을 해댄다. 모든 결정은 나의 몫이 되었다.

손님들의 탄성이 크게 터져 나온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TV화면으로 옮아간다. 사나운 군인들의 발길질에 시위대의 얼굴이 무참히 일그러지고 있다. 순간, 손님들의 동공에 핏발이 선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선 '미얀마 군부의 무사비한 진압, 유혈사태 확대'이라는 글자가 자막으로 깔린다. 화면이 바뀐다. 한 무리의 경찰병력이 시위대를 포위한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진압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듯 시위대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린다. 그와 동시에 군인들이 시위대를 붙잡으려 양쪽에서 거리를 좁혀 온다. 시위대는 안간힘 섞인 목소리로 구호를 외친다. 진압봉이 휘둘러진다. 시위대의 머리에서 핏물이 흐른다. 잠시 뒤,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오른다. 곧이어 몇 차례의 총성이 울려 퍼진다.

화면을 응시하던 손님들이 험악한 쌍욕을 퍼붓는다. 그들은 분노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한 채 소주잔을 거푸 입으로 가져간다. 경찰들이 진압봉으로 사정없이 후려치고, 그것을 맞고 쓰러지면 군홧발로 밟

아 버린다. 군인들은 시위대를 쫓기 위해 최루가스를 발포하고, 그 가운데는 정말 죽어버리라는 듯이 총질을 하는 군인도 있다. 손님들은 한동안 서로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본다. 눈망울이 그렁하게 젖어있다. 나는 그 눈망울에서 희망을 읽어낸다. 가슴 한구석을 싸르락거리게 만드는 슬픔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허참중령의 눈도 충혈 되어있다. 그는 충혈 된 눈으로 나를 건너다본다. 우리는 그렇게 마주선 채 서로의 눈망울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가슴속에 맺혀 있던 답답증을 녹여낸다. 그는 나의 눈치를 살피곤 입술을 달싹인다.

"할머니의 건강은 좀 나아졌어?"

나는 그의 질문에 머뭇거려진다.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차마 말하지 못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민물장어 대금을 갚고 나면 여윳돈이 없다. 허참중령은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제안한다. 나는 고개를 내젓고 손님테이블로 고개를 돌린다. 그들은 서늘해진 목덜미를 매만지며 소주잔을 기울인다. 그렇다. 우리의 가슴팍엔 정교하게 봉합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들이 각인되어 있다. 손님들은 가슴 싸르락거리는 기억을 지워내려는 듯,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선다.

나는 공손히 인사말을 건네곤 칼에 베인 검지를 매만진다,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 하지만 허참중령이 붙여준 반창고는 손가락을 단단히 동여매고 있다. 순간, 머릿속에서 그의 말이 또렷이 되살아난다.

'유리야? 나에게 조금만 마음을 열어줘.'

그와 나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맞다. 삶이란 현실적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무등산을 휘휘 둘러본다. 송골매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간다. 날갯짓이 나의 가슴팍을 향해 휘두르는 칼날 같다. 허참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술을 달싹인다.

"다음 주에 다른 부대로 배치될 할 것 같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전화 줘."

나는 대답 대신 수족관을 응시한다. 힘차게 꼬리지느러미를 흔들던 민물장어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다. 늙은 장어만 외롭게 수족관은 지키고 있다. 허참중령도 눈에 백태가 끼고 비실거리는 늙은 장어를 보면 슬퍼질까. 어쩌면 나도 몸을 뒤집고 수족관 위로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기절시킨 다음 단번에 대가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훑어낼 것이다. 그래서 허참중령의 고백이 곤혹스럽다.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니를 뽑아야 한다. 그렇다. 나는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다. 행운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예감하지 못한 대가는 온전히 나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 여파로 명치끝이 뻐근하게 결려온다.

난 마음을 다잡고 장어탕을 끓인다. 비린내를 날려 보내려면 센 불로 끓여야 한다. 팔팔 끓이다가 중간불로 마무리하면 된다. 순간, 가슴이 미세하게 떨려온다. 무엇이 그토록 그리워하게 만든 것일까.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할머니가 아빠와 엄마를 그리워하고, 결국 기다림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막다른 곳에 몰린 기분이다. 어쩌면 할머니마저 떠날 줄도 모른다. 속절없이 피어오르는 물안개 같은 그리움. 두 눈이 스르르 감기는 그리움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비릿한 해감내로 변했다. 어떤 날은 청각냄새 같기도 하고, 칼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 맡아지는 향긋한 소금쩍냄새 같기도 했다. 그걸 오래 맡고 있다 보면 머릿속이 온통 몽롱해졌다. 처음엔 몰랐지만 그 경련 같은 해감내는 가슴팍 깊숙한 곳까지 뻗어 들어와 애증을 흔들어 놓았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리움에 그렇게 몸이 떨렸을 것이다.

나는 무등산을 휘휘 둘러본다. 무등산이 뿌옇게 흐려진다. 나는 얼른 눈물을 훔친다. 순간, 어질 머리와 속 쓰림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겹쳐온다. 이젠 더 이상 알고 싶은 진실 같은 건 없다. 잊고 싶은 일과 결별하기 위해서라든가,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라든가 하는 식의 거창한 의미도 없다. 괴로움은 결국 나의 몫이 되어버렸다. 허참중령은 나의 전화를 밤새워 기다릴지도 모른다. 나는 삶의 날실과 씨실,

어느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고 기도한다. 할머니와 함께 살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다.

나는 숙주나물과 장어살점을 넣고 끓인 탕을 대접에 담아 할머니에게 내민다. 수족관엔 늙은 민물장어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난 수족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바닥과 벽을 더듬어 본다. 손에 미끈거림이 느껴진다. 수시로 물갈이를 해주고 꼼꼼하게 청소를 했다. 당황스럽다. 물이끼라니. 사람의 그악스런 손길에도 꿋꿋이 제 생명을 피워내고 있는 물이끼다.

마지막 손님이 식당을 빠져나간다. 난 인사말을 건네고 싶지만 말이 목에 걸려 뱉어지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려진다. 늙은 민물장어가 수족관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다. 그나마 굵은 머리와 긴 몸통은 축 늘어져 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 있음을 알리려는 듯 꼬리지느러미를 조금 말았다 편다.

나는 수족관으로 손을 집어넣어 늙은 민물장어를 휴대용 물통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무등산으로 걸음한다. 공기는 끈적끈적한 열기로 달아올라 있다. 무등산 입구에 커다란 전광판이 켜져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벽에 붙은 대형전광판으로 옮아간다. 탱크가 거리를 내달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 살갗 위로 수없이 내리 꽂히는 몽둥이. 군인들이 시위대의 몸을 뒤집을 때마다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비명을 내지른다. 그 서슬에 사람들의 함성이 뒤섞인다. 그 함성은 미얀마 사람들의 가슴팍까지 파고들 것이다. 전광판 화면이 바뀐다. 흙먼지 속에 육중한 탱크가 멈춰서있다. 탱크 앞에 서 있는 노인이 움츠린 어깨를 편다. 나도 모르게 다리가 휘청거린다. 미얀마 사람들은 기억하기 힘든 먼 미래를 좇아서 비치적거리며 거리로 몰려나온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휴대용 물통의 뚜껑을 연다. 늙은 민물장어가 꼬리지느러미를 길게 뻗는다. 기력이 남아있다. 다행이다. 난 늙은 장어의 몸통을 몇 번 쓸어주곤 무등산 계곡물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크고 긴 수족관은 처음일 것이다. 늙은 민물장어는 최선을 다해 자맥질을 시작한다. 장마철에 물살이 거세지면 신경통에 온몸을 뒤틀겠지만 잃을 뻔한 자신의 고향을 찾았다고 안도하며, 둥지를 틀 것이다. 순간, 미세한 두통이 밀려든다. 괴로움은 결국 나의 몫이 되어버렸다. 허참중령은 나의 전화를 밤새워 기다릴지도 모른다. 눈앞이 뿌예진다. 나는 허참중령이 붙여 준 반창고를 검지에서 떼어낸다. 문득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의 피돌기가 빨라진다. 자칫 울음이라도 터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문다.